

TRADE BRIEF

전략시장연구실

김 은 영 수석연구원 02-6000-7623, ordiy@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美日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미일 정상회담은 美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아태지역 최초의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통상, 환율, 경제무역 등 각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일본기업의 미국 내 고용 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피력하고자 했다. 비록 미일간 첨예한 이슈인 무역불균형, 통화정책, 방위 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향후 펜스 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대우와 경제 대화협의체를 마련한 것을 주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속적인 對美 로비 전략을 참고하여 미국 내 지한파 인사 육성 강화 등 장기적 對美 통상 플랜 마련과 함께 향후 논의될 미일 FTA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스타일과 전략을 면밀히 관찰하여 향후 한미 FTA 이슈에 대비해야 한다

01. 미일 정상회담 주요 내용

- ◎ (안보·동맹)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협력과 함께 센카쿠 분쟁에 대해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임을 확인
- ◎ (경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무역, 투자 부문 협의를 위한 통합조직(경제대화 협의체) 신설에 합의
 - 구체적 내용은 아소다로 부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협의하기로 함
 - 경제대화 협의체를 통해 ① 금융 등의 거시경제정책의 협력 ② 인프라, 에너지산업 분야 협력 ③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논의 예정
- ◎ (무역) 양국 정상 모두 상호보완적 재정·금융·무역구조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접근에 대해 합의
 - 아베 총리는 일본기업의 미국 고용 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피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를 평가하고 향후 투자에 대한 기대감 표명
- ◎ (TPP) 아베 총리는 TPP의 전략적 의의에 대해 설명. 트럼프 대통령 또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구체적 진전 내용은 없음

- (환율) 미·일 재무장관간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
- (기타)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테러와의 전쟁에도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는 것에 합의 하며 연내 訪日을 약속
 - 주일 미군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으며, 아베총리는 일본의 고속철도 기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

02. 정상회담 평가(일본내 주요 언론 및 논평)

-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영국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이나, 아태지역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 일본은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첫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통상, 환율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고자 함
- 일본 내에서는 무역불균형, 통화정책, 방위경비 등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비판했던 이슈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외신의 비판적 평가와 달리 일본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으로 접근한 것과 구체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
- 미·일간 첨예한 이슈는 향후 논의될 전망으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함
 -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환율정책과 무역불균형에 대해서는 향후 美 부통령, 재무장관 등과의 대화를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펜스 부통령은 인디애나주(러스트벨트)지사 출신으로 도요타 등의 일본기업이 미국 고용 창출에 대해 기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섭상대로는 적격이라는 평가
 - * 현재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본차의 60%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약 150만명의 고용 창출
 - TPP 철회 후 트럼프 정권의 기조대로 미·일 양자간 FTA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에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
 - 현 USTR(美 통상대표부)대표로 지명한 로버트 라이시저는 80년대 美 레이건 대통령 정권 하에서 USTR 대표를 역임하며 대일철강협의로 일본의 수출을 규제했던 강경파임을 경계
- 산케이(産經)신문사와 후지네트워크(FNN)에서 실시(2.18~19)한 합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1%가 미·일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
 - 미·일 정상회담 여론조사 평가결과 긍정적 평가(64.1%), 부정적 평가(28.6%), 잘 모르겠음(7.3%)순으로 나타남

- ‘안보동맹 확인’에 대해서는 77.0%가 높이 평가한 반면, ‘경제대화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59.7%만이 긍정적으로 평가
- ‘일본의 미국 고용창출에 협력’ 대해서는 62.5%가 찬성함
- 미국 측의 전례 없는 대우(사저초대, 골프 등)에 대해 75.3%가 호감을 나타냈으며, 62.7%가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고 응답함

03. 결론 및 시사점

- ◎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나 기업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으며 향후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이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선제적 투자를 약속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음
 - 도요타는 최근 향후 5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소프트뱅크는 총 500억 달러를 미국 내 신규 투자하여 5만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함
- ◎ 금번 회담에서는 주요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향후 부통령간의 회담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TPP 철회에 따른 미·일 FTA 진행상황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TPP 협상에 이어 미·일 FTA 협상에서도 농산물시장 개방이 주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한·미 FT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일본의 지속적인 對美 로비 전략을 참고, 미국 내 지한파 인사 육성 강화 등 장기적 對美 통상 플랜 마련 필요
 - 일본의 경우 정부관련 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일본의 대외 이미지제고에 나서는 한편, 학계후원, 현지인고용 등을 통한 비공식채널을 함께 가동하고 있음
 - 일본 외무성은 2015년 전략적 대외홍보*를 국가 3대 과제로 채택하고 약 4,700억 원의 예산을 편성(전년대비 3배 증가)
 - * 전략적 대외홍보의 3대 목표 : 영토 보전과 역사인식을 포함한 일본의 올바른 모습 전파, 국외 홍보문화 외교거점 창출을 포함한 일본의 다양한 매력 홍보,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 확산
 - 비공식채널로 미국 내 친일그룹인 ‘국화파(知日派)*, **’를 육성해 여론 주도
 - * 국화파 : 일본 연구에 집중했던 외교관이나 싱크탱크 연구자들의 모임
 - ** 주요 인사 : 제럴드 커티스(콜롬비아대 교수/도쿄대 강의 및 연구 경험), 켄트 칼더(SAIS 교수/주일대사 특별 자문의원), 리처드 사무엘스(MIT 교수, 일-미 친선위원회 의장)

참고

정상회담의 得과 失(日 Money Voice , 2017. 2. 12.)

<일본이 얻은 것>

- ① 동맹지위 확인, 중국의 위협으로부터의 안보를 확실히 한 것
- ② 전례 없는 대우
 - 미·일동맹의 강화를 중시하는 아베정권 내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와 사저 초대 또한 주요 성과로 보고 있음
- ③ 환율, 통상마찰 등 기존 비판 논조를 일단 잠재움
 - 자동차산업의 미국 고용확대 기여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환율문제는 양국 재무장관 면담으로 위임
- ④ 신칸센 홍보를 통한 인프라 사업 협력 가능성
 - 아베총리는 일본의 신칸센기술을 적극 홍보하며 향후 트럼프 정권의 인프라 사업에 자금뿐 아니라 기술면의 협력이 가능함을 피력

<일본이 잃은 것>

- ① 독립국으로서의 존엄
 - 트럼프 정권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120% 종속하는 일본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줌
- ②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과 막대한 방위비
 - 동맹안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베총리는 오키나와 헤노코로의 미군기지 이전의 불가 피성에 대해 언급하고 방위비를 증대할 수 있음을 시사
- ③ ‘親트럼프’임을 공표, 反트럼프 세력의 신뢰를 잃음
 -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反트럼프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아베총리는 일본이 전면적 트럼프 지지자임을 공표함으로써 트럼프의 막무가내 정책에도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짐